단호박 오리찜

(마10:16~23)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17.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단호박 오리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 합니다.

제가 매일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하는 길에 꽤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집에서 하는 음식에 대한 그 맛의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단호박 오리찜'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입니다.

'단호박 오리찜'

먹어보지는 않았어도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앞에 이렇게 큰 플래카드를 붙여 놨어요, 집 담벼락에, 무슨 중세의 아니면 유럽풍의 가옥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집인데 눈에 띕니다.

황토색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붙여 놨는데, 빨간 단호박 그 속을 다 긁어낸 뒤에 그 안에다가 오리 살을 채웠습니다. 뭐 갖은 부재료를 잔뜩 집어넣고는 호박을 구은 거예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이 가는 건 호박껍데기가 새까만 거 보면, 근데 껍데기만 새까맣지 그 호박을 잘라서 펼쳐 놓은 것을 보니까 빨간 오리 살이 먹음직스럽게 익어있고 그리고 그 오렌지 빛깔의 단호박 살은 그대로 퍼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음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단호박 오리찜 그림이 오늘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단호박 오리찜을 하려면 자연적으로 그 호박이 익어가서 빨갛게 익었을 때 상태를 생각해보면 필수적으로 그 속을 다 긁어내야 됩니다.
속에는 씨가 있고 그 호박 안에 뭐 이렇게 잔뜩 들어있지 않아요? 그걸 다 긁어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 오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오리를 채워 넣어서 호박을 동그랗게 봉합을 해 갖고 오랜 시간동안 뜨거운 불에 굽습니다, 겉껍데기가 새까맣게 탈 정도로.
그 단호박 오리찜을 생각하니 오늘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이거 예수 믿어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기가 죽게 만듭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장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이런 것으로 가득차고 힘차게 힘을 받아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 걸린 분들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 예수님 그 당시 세상은 죽은 자를 낫게 하는 권능을 갖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채찍에 때리고 공회에 넘겨져 재판받게 하고 이 동네에서 핍박해서 저 동네로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리들 사이에 끼어있는 양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니까…
요즘 같아 봐요, 한센씨병이라고 합니다, 나병환자 하나 낫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능이 있다 그러면 공중파 방송국까지 와서 찍어 댈 거예요.
PD 수첩이라든지 시사매거진 이런 데서 찍어가지고 공중파를 타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런 천국의 권능을 갖고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양을 이리가운데 보냄 같다' 해 놓고선, 그 양을 이리가운데 보냄 같은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양을 이리가운데 보내는 건 비유 아닙니까?

근데 그 비유가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냐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천국을 전파하러 다니며 권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거랍니다.
참~ 예수님 특이하세요, 이 어법이.
왜 특이하냐 하면, 여러분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피면 '무엇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마음을 지켜라' 라는 얘깁니다.
무엇 무엇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을 삼가라'해 놓고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법에 맞아요? 우리나라 어법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요, 그들이 공회에 넘겨주려고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삼가서 잘 피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요.
근데 사람들을 삼가고 사람들을 조심합니다. 그런데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는 사실은 기정사실화 되어버려요.
삼가긴 삼가고 조심하긴 조심하되, 잡혀가긴 잡혀갈 거다, 조심해서 잡혀가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잡혀가긴 잡혀갈 거고 채찍질은 받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의 상황을 주님께서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형제와 부모와 자식들이 나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핍박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과정은 사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자기들뿐만인 줄 알고 자기들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심을 다하려고 교회 안에 봉사를 위해 집사님들을 뽑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집사님도 봉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면서 그 집사님들도 역시 돌아다니며 빌립 집사나 스테반 집사가 다 전도하고 다니다가 사도들보다 먼저 오히려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교회 봉사가 아니었어요, 교회 봉사가 아니었어요,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기껏 그렇게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리 가운데 양이라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게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 채찍질 하라는 말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이건 다시 말하면, 몸은 잡혀가고 채찍질 받을 것인데 마음은 지켜라 이겁니다, 마음은.
참 감사하시지요, 기껏.
지금 몸에서 철철 피가 나는데 마음은 삼가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리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령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기껏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속수무책이에요, 죽으라는 얘깁니다.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 뱀의 지혜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의 발톱을 피할 수 있기 위해 뱀의 지혜를 발동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이거 오해에요.

뱀의 지혜는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믿지 않는 이방세계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뽑힙니다.
그 지혜자가 깨달은 지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지혜의 최고봉이라는 걸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죽은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이 뱀의 지혜가 뭡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한방에 타락시킬 수 있는가를 아는 게 뱀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만든 것이에요, 그렇게 유혹해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뱀의 지혜는 무엇이냐?
인간 됨 안에 머물라는 것이고 오늘 비유로 말하면 양을 이리가운데 보냈을 때에 이리들 틈바구니에서 이리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항하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되지 말고 더 무서운 자가 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맹수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어라, 뱀의 지혜가 뭐에요? 나의 분수를 알고 분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 안에 머무는 것인데, 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양으로서 이리들 가운데 양 됨을 지키고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그 고난 속으로 더 강화시켜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잡혀가되 그 잡혀간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할 말은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할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을 그려 놓으시는데 이것은 이런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고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라도 있어서는 도저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핍박하면 맞서 싸우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은 끝까지 지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깁니다.
마음속에 신앙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신앙은 빼앗기지 않고 그냥 피해 다녀요, 맞서고 저항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이러한 기세가 보이지를 않아요.
'할 수 있다 나가서 뭐 이루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박 오리찜에서처럼 자연적인 호박의 생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속에 가득 차있어요, 그거 싹 다 비워야 되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소원,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애착, 이 자연인으로서 갖게 되는 마음속의 속 내용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근데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싹~ 다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어 갖고는 이런 모습의 삶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세상에 대한 소원과 꿈 다 걷어내고 천국으로 채우지 않고는 이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사도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그래 놓고는 당신자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인간의 언어로 이루형용하기 곤란할 정도의 고통의 점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는 말을 합니까? 왜~~?
부함에 처할 줄 안다는 말만 해야 정상적인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부에 처할 줄 아는 것, 당연하게 그걸 배워야 되겠지마는, 빈곤에 처할 줄 아는 것은 왜 배우라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이 심리적인 상태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가난해도 행복하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천국이에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는 것처럼 차원을 달리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 천국을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해 느끼고 감지하면서 천국 맛을 보고 천국을 갖지 못하고 천국을 마음에 담지 못한다면 기독교처럼 믿지 말아야 될 몹쓸 종교가 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처럼.
종교가, 종교가 추구하는 자기들의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완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종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을 가짐으로써 자기 문제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다~ 이루어놓고 이제부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고난밖에 없다 이겁니다, 피해 다니라는 거예요, 빌빌 거리면서.
그리고 속내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속내가.

그래서 왕 앞에 잡혀가도 내 소신을 말하고 내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네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할 뿐이다' 아예 속을 비우라는 얘기에요, 강한 신념과 이런 걸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어떤 확고한 무슨 의지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속내를 비워버리라는 얘깁니다, 아예.

참…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정말 웃기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왜 웃기지도 않으신 분이냐?
자,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정말 사람 자빠질 정도로 놀랄 일이 벌어졌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제자들도 그렇고 어머니 마리아나 아버지 요셉도 그렇고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모든 아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한 십 년쯤 더 살면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부활한 그 몸을 다 드러내시고 로마군인 앞에도 짠! 나타나시고, 좀 더 세상에서 이루고, 좀 더 세상에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가셨어도 되잖아요?
아니 무슨 뭐 누가 지금 쫓아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급하게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잠깐 만나고 나서는 쏜살같이 하늘나라로 가버리십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우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졸로 보이세요? 주님한테는?
맞아요,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잠시도 이 세상에서 더 머물고 싶지 않을 만큼 이 세상에는 천국을 아시고 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는, 세상에 더 머물고 싶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어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공회에 잡혀 재판받고 임금 앞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과 부모들과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꾸

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을 마음에 담으려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원과 바람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아무리 건전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이 세상에 대한 거라면 싹 다 긁어서 단호박 속을 비워내듯이 비워내야 내가 주려는 오리고기가, 천국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서 뜨겁게 고난과 핍박을 통해 달궈질지도 모르지만 속을 비워야 오리고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형통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 이게 지금 제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사상에 근거해서 제 신앙적 취향에 근거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5절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을 민족적인 편견이 아니라는 말로 예수님을 변호하느라고 주석가들이 아주 진땀을 뺍니다.
이건 이 당시에 일시적으로 한 말이다, 지금 현재의 순간에서는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민족적 편견이 아니라는 걸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시대를 통해 쭉~ 유대인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고 제 딴에는 율법을 지키네 마네 하며 살았지마는 내가 가져와서 주려고 하는 천국이라는 것에는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았던 유대인의 삶, 몇 천 년의 역사전체를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우선적인 이득이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구약의 시대를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이 내가 가지고 온 천국에 대

해서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은 제쳐놓고, 유대인은 그 면에 있어서 앞서 있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너희가 지금 처해 있고 인접해 있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라.
왜? 그들도 내가 가져와서 주려고 하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유리한 점도 없고, 이미 천국을 눈곱만치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삶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러한 사상으로 살고 있는 한, '이래저래 하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 속에 있는 한 내가 가져와서 주려고 하는 이 천국을 갖는다는 말은 상관도 없는 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때 하신 말씀이지 뭐, 그때 하신 말씀이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핍박할 사람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은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겠네요? 아니면 박해가 있는 상황에만,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이 보고 힘을 얻는 말씀이겠네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그 고난의 삶을 꽤 뚫고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신앙의 마음상태는 현실적으로 이런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꿈과 바람과 이루고 싶은 소원과 계획과 뜻과 의지를 다 단호박을 긁어내듯이 긁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는 이 세상에 대해서 깡그리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 속내는 단호박 오리찜을 위해서 선택받은 호박들처럼 속을 다 긁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염려근심뿐만 아니라 소원 계획 모든 것 다 긁어내고 그리고 하늘로 채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핍박 이런 얘기들은 욥에게 주어진 핍박과도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부활하시고 좀 더 사셨으면 기깔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쫓겨 가듯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마치 무슨 결혼한 신랑이 회사원들이 회식한다 그래도 죽어라고 안가고 신부 보겠다고 집으로 부리나케 가듯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이 땅을 그렇게 박차고 떠나 버리셨습니까?
안 그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죽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셔도 되잖아요, 이제부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공항에서 배웅한 사람이 미국 가서 전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천국대로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없으면 승천하신 주님은 어디 가셨겠습니까?
그 천국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갖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 주신 겁니다.
미국 떠난 사람이 전화하듯이 성령을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채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것, 오늘 이 핍박 이 어려움 이 고난, 돈 문제, 자식문제, 건강문제,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마음에 천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안해하지도 않으시면서 고난을 주시고 순교까지 끌어가십니다.
왜? 천국을 가진 자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순교해서 일찍 죽는 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모양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모습인 것을 압니다.
주님은 미안해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미안해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편안한 삶의 환경에서 마음 붙이고 세상에 있느니, 세상에서 마음 붙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핍박은 안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어서라

도, 이 마음이 이 땅에서 떠나서 십자가 붙잡고 완전히 속을 긁어내고 그 빈속에 천국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게 돈 안 주시고 고통 뭐 병들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마음을, '삼가라'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갖게 되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단호박 오리찜을 생각하세요.
내 속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로 호박 안을 채우듯이 천국으로 채우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주된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외형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천국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에게 이 세상의 삶의 고난을 이야기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안 준게 아무것도 없고 너희에게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단호박 오리찜처럼 되게 해 주셔서 세상을 향한 나의 꿈과 바람과 계획과 뜻과 의도와 불평과 근심 하여간 세상과 관계된 모든 걸 다 긁어서 비우게 하시고 그 빈속에 오리고기를 채우듯 하늘로 가득 채운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부자건 가난하건 모든 환경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